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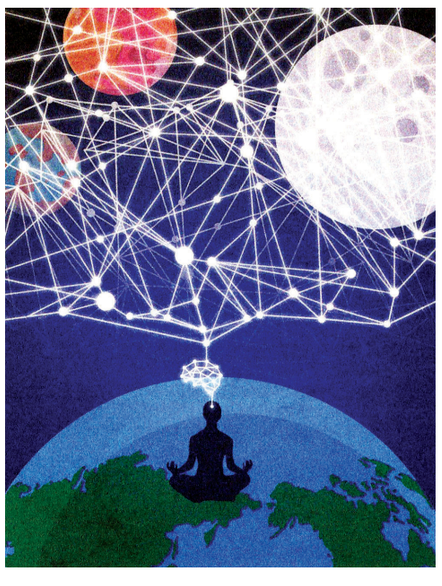
이번주 베스트불서 1위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이 책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유심조, 공(空), 불이(不二), 구족(具足)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한 체험을 소개한 설법집이다.
저자 김원수 법사(전 홍익대 공대 교수)는 이 책에서 난민이 된 청년들, 노인 빈곤층, 고독사 증가, 인구감소로 암울한 미래, 대량실업과 해고위기 등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시대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6 ~ 7/1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카르마 100일 (보현스님의 행복 체크카드)	보현스님	부처님마을
2	그대는 꽃입니다(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복한 첫걸음)	천룡스님/효석스님	사유수	7	친우서 –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용수보살	운주사
3	요가디피카	현천스님	선요가	8	화엄경, 보살의 길을 열다	윤홍식	봉황동래
4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	무비스님	불광출판사	9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정운스님/배종훈	민족사
5	중론(용수의 사상, 저술, 생애의 모든 것)	가츠라 쇼류 외	불광출판사	10	위빠사나 명상일기	영선	운주사

‘본래마음’을 구해 병든 삶을 치유하다



모든 경계를 허무는 인간의 본래마음, ‘공적영지’
우리는 왜 ‘대상’만 알고
대상을 아는 ‘마음’은 알지 못하는가
표층의식 너머 ‘공적영지’에서 답을 구하다
‘본래마음’으로 인간과 세계 고찰한 사유 결정체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김영사 펴냄/1만 3천원/한자경 지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는 진정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까? 우주 만물은 모두 알되 그렇게 아는 자기 자신은 왜 모를까? 세상 모든 것은 드러난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임을 이미 아는 마음이 ‘공적영지(空寂靈知)’이다. 이 말은 인간의 본래 마음을 밝혀 숨 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이화여대 한자경 교수의 사유 결정체이다. 한 교수의 이번 책은 경쟁사회서 소외와 우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근본적인 치유의 길을 제시하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한 교양 철학서이다.

표층에 머무르는 의식은 옷은 보되 옷입은 사람은 보지 못하고, 말은 듣되 말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의식이다. 마음의 본성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과 남에 대해서도 오직 드러난 모습에 따라 판단하고 단정한다. 상(相)을 따라 떠다닐 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다. 현대인은 표층에 부유하면서 바닥에 닻을 내리지 못하는 방랑자들이다.

보이는 것이 없는 허공(空)과 같은 마음, 들리는 것이 없는 적적한(寂) 마음이 자신을 신령하게(靈) 아는 공적영지이다. 이 심층 마음의 빛을 우리는 본래 갖추고 있다. 이것을 자각함으로써만 세상 모든 것이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만, 근본에서는 서로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표층에서의 부유를 멈춘다.

인간의 심층 마음을 일관되게 연구해 자신만의 고유한 사유체계를 정립한 ‘일심의 철학자’ 한자경 교수가 그의 사유의 정수만을 모아 쉽고 명쾌하게 풀어낸 대중 철학서이다. 이미 저자는 1993년 제5회 서우철학상(〈칸트와 초월철학: 인간이란 무엇인가〉), 2008년 제2회 청송학술상(〈불교의 무아론〉), 2012년 제3회 원효학술상(〈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2013년 제10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대승기신론 강해〉), 2017년 제7회 반야학술상(〈심층마음의 연구〉)을 수상하며 국내 학계서 호평 받은 바 있다.

서문에서 저자는 “그동안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고 생각해 얻은 결론들을 가능한 군더더기 없이 간략히 표현해 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듯,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면서도 그간의 연구가 알알이 녹아있어 심오한 사유를 가능케 한다.

사람들은 선과 악, 미와 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나와 나 아닌 것, 몸과 마음 등 일체를 크게 둘로 나눠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원적 사고는 차이를 본질로 규정하면서 공통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는 개인주의로 이어진다. 분별은 둘 사이의 경계인 장벽을 세우고 소통을 막으며 둘 중 하나에 나를 가둔다. 장벽 이쪽은 나이고, 장벽 저쪽은 너이다. 둘의 관계는 시소와도 같아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이 내려간다.

하지만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는 것처럼, ‘나’가 ‘나’인 것은 ‘나 아닌 것’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개별자는 자신이 아닌 것을 통해 자신이 되는 ‘상즉(相卽)’의 존재이다. 그런데 ‘나’는 내 앞의 사과를 ‘나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그 사과를 먹으면 그것이 나의 살과 뼈가 되는 것처럼, ‘나 아닌 것’이 ‘나’가 된다. 그리고 그 사과는 지구의 땅과 물, 햇빛과 공기 등을 통해 자라났기 때문에 그 사과에는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

즉 일체는 ‘상입(相入)’의 관계에 있으며, 이는 우리를 전체의 하나로 인도한다. 전체의 하나는 절대 무한의 마음이다. 무한으로 나아간 마음은 그 안에 보이는 것이 없는 허공과 같은 마음이고 그 안에 들리는 것이 없는 적적한 마음, 공적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본래적 각성으로 깨어있는 ‘아는 자’로서의 마음이기도 하다. 공적의 마음이 자신을 신령하게(영) 아는(지) 이 것을 공적영지라 한다. 현대인은 공적영지를 망각하고, 의식되는 것을 자기 밖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표층의식이 마음활동의 전부라고 여긴다. 이는 ‘꿈꾸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를 ‘꿈속의 나’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표층에 머무르는 의식은 심층의 본성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오직 드러난 모습인 상(相)을 따라 판단하고 평가하며 단정한다. 현대인은 상을 따라 표층에서 부유할 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다.

심층을 망각하고 세상을 보면 존재하는 것은 모두 표층 개별자일 뿐이다. 분별 이전의 공통의 기반은 모두 사라지고 개별자들은 허공에 부유하며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도모한다.

이런 삶은 타인을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게 하고, 상대를 비교와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한다. 친구도 동료도 경쟁 대상이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게 된다. 비교와 경쟁에 익숙해지면 현재는 오로지 성공하는 미래를 위한 수단이 되고, 결국 현재가 없는 삶이 된다. 성공 지향적 인간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행복은 현재의 느낌인데 현재가 늘 비어있기 때문이다.

보물은 현재 내가 갖지 못해 새롭게 획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언제나 갖추어져 있어 내가 그 소중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의식의 문턱 아래 있는 것,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에 속한 것이다. 그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심층마음이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와 경쟁을 멈추고 내 본래마음을 알아차림으로써만 도달할 수 있다. 경쟁사회 속에서 우울과 불안, 소외를 안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심층마음으로 지금 여기의 ‘나’와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게 해준다.

송시 속에는 어떤 시대정신과 선학이 들어 있을까?



송시의 선학적 이해

박영환 지음/운주사 펴냄/2만 7천원

중국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 송대의 문학. 이 책은 그 가운데서도 백미라 할 수 있는 송대의 시가(詩歌)를 선종의 관점서 회통과 융합이란 주제로 치밀하게 연구한 역작이다. 이를 통해 송(남북송)대의 문학(시)에 대한 불교(선종)의 영향과, 양자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밝힌다.

중국 문화사서 송대는 각별한 위치를 가진다. 중국 역사상 송나라 때가 중국 문화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는 다양한 문화의 회통성과 융합성이 작용한 결과로, 특히 시가와 회화의 결합서 두드러지게 표현돼 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웠다. 그 가운데 송대 시가는 유·불·도 회통이라는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데, 특히 ‘유가들의 선종화’와 ‘선승들의 유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송시는 선적인 사유로 새로운 혁신을 추구했기에 당시(唐詩)와는 다른 새로운 특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주로 송대 선학(禪學)의 시각서 바라본 송시에 대한 연구이다. 선학에 있어서 문자선·간화선·묵조선을 강령으로 삼고, 송시의 대가들을 맥락으로 하여 송대 시가사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 이들 대가들의 시작과 논시를 보면 모두 불교와 밀접한 인연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선종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특히 지금까지의 연구가 대부분 소식과 왕안석·황정견 등 대가들에게만 집중돼 제한적이었으나, 저자가 이 책서 언급하는 범위는 크게 확대돼, 위로는 송대 전기의 범중엄·구양수·왕안석, 아래로는 남송의 육유·양만리·범성대·강서시파·영가사령 등 전반적으로 송시의 대가들을 거의 모두 아우른다.

중국 송대는 융합과 회통의 시대였다. 유학을 빌어 선종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원유증선(援儒證禪)’의 유행과 그 영향으로 문자선과 간화선이 출현했다. 선종을 빌어 유학의 사상적인 깊이를 추구한 ‘원선입유’의 사조는 성리학을 탄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유불 간의 융합과 회통은 송대 문자선, 간화선, 묵조선의 발흥에 영향을 미치면서 송대 선종은 전성기를 맞이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서 특히 제 4부 ‘간화선과 남송 시단’에서는 문자선으로 말미암아 성행한 북송 시단에 비해 남송서는 문자선을 비판하며 나온 간화선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에 따라 남송 시단에 나타난 변화와 대표적 남송 시인들을 고찰한다. 먼저 애국시인 육유와 간화선의 창시자 대혜종고의 교유, 거기서 나온 이선유시와 시가삼매를 다루고, 이어 양만리의 시가 이론과 이선입시의 시가를, 그리고 범성대의 불문과의 교유와 입처개진, 반야공관에 입각한 시가를 탐구한다.

이 책은 한마디로 송대에 가장 크게 번성한 선종과 송대 문학의 백미인 송시가 어떤 시대정신 속에서 만나고,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문학을 창출하였는가를 인물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불교와 송대의 선종, 특히 송시宋詩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해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親友書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윤회와 인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국판 / 200쪽 / 값 10,0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전 중 가장 오래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박이오 역 / 신국판 양장 / 368쪽 / 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